

종교개혁의 당위성과 자유변이현상 - 셰익스피어 희극을 중심으로

- 황 인 경 (성균관대 인문학 연구원)

I. 서론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문화를 동경하고 갈구하던 모습이 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 전반에 유럽에서 문예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문화 현상은 이탈리아 프로방스 지방에서 시작되어 유럽 대륙 전반으로까지 퍼져나갔다. 이는 중세의 암흑시기의 신적인 가치의 시선으로 보아온 중세적인 세계관에 종지부를 찍고 인간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다음에 오는 인용문은, 이러한 인본주의 중심의 문화가 열린 사회로 활짝 문을 열게 되면서, 다양하게 그 당시의 사회를 변화 시켜주고 있는 세계관으로 향해나가는 초석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비록 “인본주의”라는 개념이 19세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고전시대에서는, 지금은 인본주의 또는 인문학이라고 불리게 된, 스테디아 휴머니타스에 대한 결과물로 생각한 이래로, 이것은 합리적, 개방적, 그리고 포용력 그리고 세련되고 정제된 것을 포함하는 일정한 문화적 가치를 가리키는 라틴어인 *휴머니타스*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Although the term “humanism” did not come into general use before the nineteenth century, it has its roots in the Latin *humanitas* which refers to certain broad cultural values, including reasonableness, open-mindedness, magnanimity, and refinement, that since classical times have been thought to be the outcome of the *studia humanitatis*, which would now be called the humanities or the human sciences. ¹⁾

1) Michael Payne & John Hunter, ed. *Renaissance Literature An Anthology, Introduction The Renaissance in Cultural and Critical Theory*, (Blackwell Publishing, Oxford, 2003), p. xxii

유럽의 르네상스는 중세의 암흑 시대의 어두운 터널에서부터 벗어난 문화의 새로운 희망을 안겨다 준 것이었다. 종교에 귀의하는 성직자들은 신과의 합일을 중요시 여긴 나머지, 결혼과 가정의 양립을 우선시 여기지를 않았다. 르네상스는 신 본위 중심에서 인본주의의 시각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 그에 뒤따르는 종교 개혁이 단행되었다. 독일의 루터(Luther)를 중심으로 시작된 종교 개혁 역시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지만, 그도 역시 1525년에 수녀였던 카타리나 본 보라(Katharina von Bora)와의 결혼을 하여 개인적인 가정²⁾을 일구는 가장과 성직자를 겸비한 장본인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 역사상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다. 개인주의의의 중시로 결혼에 대한 선택권과 자율권의 혜택이 성직자에게 주어졌다는 것 역시 주목할만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루터는 개인적으로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국민 문학이 발달하는 초석을 세우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가톨릭계의 정신적인 중심 인물이었던 루터가 가톨릭 교회의 파격의 여파가 영국에서도 미쳤다. 헨리 8세의 주장령의 발표로 영국은 프로테스탄티즘의 수용을 하는 영국 고유의 종교개혁을 단행한다. 이렇게 유럽 대륙에서 시작된 일종의 문화 혁명은 영국에서도 ‘제네바 바이블’이라는 성서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아울러 영어로 된 번역서도 널리 읽히게 되었다.

이러한 성서의 보급으로 인한 대중들의 시각이 개인의 자율권의 존중에 초점이 모아지고, 신 본위 중심에서 인본주의의 시각으로 전환되었다. 그들의 시각이 종교적인 독단이나 봉건 영주의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인본주의를 갈망한다. 마침내 로마 가톨릭의 독단과 권위는 해체되기 시작하였고 중세 봉건제도의

2) As individual access to the bible became increasingly rare and expensive, and with the progressively more hierachical clergy, family worship generally declined into dust from about this point in Christian history until the Reformation. But when the Bible reentered the house, so did family worship. by the time of MartinLuther (1483-1546), the trend began to reverse and the windows of a reconvery of family worship were thrown open Luther preached almost everyday, pastoeed a church, and wrote massive amounts of theology and bible commentary. but he also recognized that like any other Christian husband and father, he had the responsibility to be the worship-leading pastor of his family. In one place Luter wrote of

Abraham [who] had in his tent a house of God and a church, just as today any godly and pious head of household instructs his children. . . in godliness. Theefor such a house is actually a school and church, and the head of the household is a bishop and priest in his house. -Martin Luther, "lectures on Genesis: Chapters 21-23 in *Luther's Works*, ed. Jarroslave Pelikan (Saint Louis, MO: Conrdia, 1964, 384. (Donald S. Whitney, *Family Worship, Here the Reformation Must Begin*, Crossway: wheaton, 2016, p.30.)

붕괴로 근대 도시 국가로의 발돋움 하게 된다. 근대 국가의 시발점을 알리는 도시의 발전이 지방 영주의 권력은 약화되었고, 이탈리아에서는 지성인들이 고전적이고 이교도적인 전통을 찾고자 하였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갈망하면서 그에 뒤따르는 신화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인 창조를 하는 문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교도적인 것이 풍기는 신화와 서로 상충되는 성서의 소재와 뒤섞여서 나온 것은 인본주의 사상에 힘입어 광범위하게 문화적인 가치의 위상을 드높혔다.

르네상스 기간에 문학과 언어(특히 수사학), 역사 그리고 철학 등 이러한 학문적 분야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인본주의는 더 나아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헌에서 비평학문과 연결된 것이었다.

Of these disciplines, literature, language (especially rhetoric), history, and philosophy were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during the Renaissance. Humanism is further - and perhaps more specifically - associated with the critical study of texts of ancient Greece and Rome.³⁾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인해 인본주의가 오히려 신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갈망하는 개인적 구원에 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개혁적인 종교 현상이 전반적으로 사회의 문화를 변화 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탈리아 프로방스 지방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라는 문예 부흥은 여러 갈래로 가지를 치면서 뻗어나가 북 유럽에까지 전파되어 나가게 되었다. 기존에는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자국의 언어로 성경 번역이 활발하게 되어짐에 따라, 각 나라의 토속 언어나 고유한 방언들을 재생시키는 민족 언어의 발달을 가져다 주었다. 다시 말해, 오히려 인본주의가 ‘성서지상주의’로 초점이 모아지면서, 성경이라는 고유한 의미는 손상되지 않고 자유로운 변이로 성경이 각 나라말로 번역되는 활기찬 개혁의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유럽 대륙에서 시작된 르네상스의 문화가 영국이라는 문화로 옮겨오게 되면서, 그것은 영국이라는 개별 문화가 싹트기 시작하면서 개별 언어의 발달을 가져오게 하였다. 자국민의 언어가 발전된 원동력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서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었고, 동시에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성서의

3) Michael Payne & John Hunter, ed. *Renaissance Literature An Anthology, Introduction The Renaissance in Cultural and Critical Theory*, (Blackwell Publishing, Oxford, 2003), p. xxii

보급이 일반대중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었다. 누구나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자국어로 번역된 성서의 보급으로 민중들이 개인적 구원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면서, 인간 존중이라는 기본이념을 터득하게 된다.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 민주주의의 사상으로 어우러진 인본주의 그리고, 로마 신화 속에서 비쳐진 기독교적인 알레고리가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개별 문학이 발전되는 활기찬 분위기 가운데, 영국 역시 시인들이 새로운 장르의 문학 작품을 시도하게 되어 문학이 왕성하게 되는 문예 부흥의 전성기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문화 융성은 곧 종교개혁의 당위성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아주 다양한 자유변이를 연출해 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개별주의의 존중이 자유로운 문학 작품들의 등장 인물 창출과 주옥같은 대사들이 쏟아져 나온다. 르네상스의 유사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 등으로 어우러진 소재 속에서 생성되었지만, 그 내면에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작품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셰익스피어 역시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그가 극작(playtext)을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종교개혁 속에서 일어난 셰익스피어의 희극 작품 속에서 나타난 자유변이의 르네상스의 영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 론

엘리자베스 1세는 종교적인 갈등 속에서 자라난 여왕이었다. 피의 메리 여왕의 핍박을 견디어 낸 강인한 정신력과 지혜의 소유자라는 것에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가톨릭의 갈등과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는 프로테스탄티즘 사상의 수용으로 영국을 이끌어 내었다. 그래서 그녀는 문인들에게 직접적인 종교적인 사상에 대한 표현을 금지 시키는 이른바 종교 검열법을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를 통해서 가톨릭과의 화해와 설득을 목적으로 그를 후원하기도 하였다. 영국의 왕실은 이러한 종교개혁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하였을 것이다. 유럽 대륙의 르네상스라는 거대문화 혁명으로 인해 약 200여년이나 뒤늦게 흘러간 영국의 르네상스의 커다란 역할을 한 셰익스피어는 자기의 희극 작품에 개신교사상이 담긴 작품에는 복음주의적인 요소가 암시되어 있다. 이것은 셰익스피어가 성서지상주의에 대한 당위성을 위한 알레고리와 같은 문학적

인 수사학으로 텍스트를 완성해 나갔다. 이러한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엘리자베스 여왕 사후에도 자유롭게 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사상이 우회적으로 담겨져 있고 유대인을 개종시키는 과정이 설득력있게 파해친 작품인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행을 저지르는 전형적인 인물 중의 하나로 나오는 샤일록(Shylock)은 바사니오(Bassanio)의 계약서에 안토니오(Antonio)의 이용하는 잔인한 거래를 한다. 그와 맺은 계약서는 악마의 계약서로, 그 계약서의 내용인즉, 돈을 빌려주는 대신 갚지 못하면 안토니오(Antonio)의 1 파운드의 살 한 덩어리를 샤일록에게 달라고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다. 이로 인해서, 그가 안토니오(Antonio)에게 살 한 덩어리를 달라고 재촉하는 위협은 안토니오(Antonio) 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테러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잔인하다. 이것은 성찬식에서 예수님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먹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가톨릭 교회나 프로테스탄티즘이 거행하는 성찬식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눠먹는데. 이러한 뜻은 예수는 우리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눠줌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결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생명의 영혼을 불어 넣어주려는 천상(天上)을 향한 것이었지만, 샤일록(Shylock)은 달랐다. 그는 반대로 남의 살 한덩어리로 자기의 부를 채우려고 하였다. 그래서, 안토니오(Antonio)와 그의 주변 인물들마저도 공포적인 분위기 속에서 긴장감을 지속 시키고 있다.

샤일록(Shylock)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베니스에 있는 유대인 대부업자, 베니스에 있는 기독교인을 손아귀에 쥐고, 특히 상인인 안토니오를, 혹사를 시키는 부당한 대우를 자행하는 행위 때문에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인물. 안토니오가 돈을 갚지 않은 채무 불이행으로 그에게 살 1파운드를 요구하는 잔인한 사람으로 안토니오에게 복수를 계획한다. 이 극에서 잔인한 괴물의 모습을하는 샤일록과는 달리 기독교적인 전형적인 등장인물들은 돈에 사로잡힌 그를 종종 조롱한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샤일록은 전형적으로 틀에 박힌 인물이나 풍자만화의 인물로 다뤄지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인물을 그려나가고 있다. 자기에 대한 딸의 배신으로 그의 분노는 더 강해졌다. 그리고 분노에 찬 언변 실력은 그를 단호하고 일관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져 나가고 있다. (논제자 번역)

Jewish moneylender in Venice. Angered by his mistreatment at the hands of Venice's Christians, particularly the merchant Antonio, Shylock schemes to get revenge by ruthlessly demanding a pound of Antonio's flesh as penalty for Antonio's defaulting on a

loan. The Christian characters in the play regard Shylock as an inhuman monster, frequently mocking him for being obsessed with money. In person, however, Shylock comes across as far more than a caricature or stereotype. His resentment at his mistreatment, his anger at his daughter's betrayal, and his eloquent expressions of rage make him a convincing, entirely human character.

<http://nfs.sparknotes.com/merchant/characters.html>

샤일록 (방백) 그래. 돼지고기 냄새를 같이 맡으라고? 당신들의 예언자 나사렛 사람이
요술을 부려 악마를 그 몸 속에 쳐 넣어 사육했다는 그 돼지고기기를
같이 먹으려고? . . . (제1막 3절)

여기에서 말하는 나사렛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성경을 글자그
대로의 외연상의 해석만을 하려는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이다. 나사렛 예수의
행적을 비웃고 있는 공포의 대사는 전형적인 고딕의 잔인함을 나타내고 있다.

샤일록. . . . 지정된 액수의 돈을 갚지 못하실 경우, 위약금으로
나리의 몸 어디에서든 내가 원하는 곳의 살을 1파운드만 주시는게 어떻
습니까?

안토니오, 좋소 그런 증서라면 서명하겠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대인도
친절하대라고 널리 말해주겠소. (제1막 3절)

율법에 사로잡힌 바리새인의 모습에서의 잔인함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자에는 자로』(*Measure for Measure*)를 완성하면서 출애굽기의 21:24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외연적 의미 외에 다른 의미를 갖지 않으려는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다. 고딕적인 요소는 로마 교
황청과의 저항적인 상황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교훈적인 배경에서부터 18세
기 말 고딕소설은 발생되었던 것은 이미 엘리자베스 시대에서부터 고딕적인 요소는
좁게는 로마 교황청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글자그대로의 문구만을 해독하려는 교황청의 독선은 바리새인과도 비슷한 모습
으로 비춰진다. 샤일록(Shyloc)과 (Antonio)와 엔젤로(Angelo)경의 모습은 법의 글
자 그대로의 잣대로 맞춰서 인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마치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잔인한 모습과도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어둡고 비인도적인 면이 있는 신분위 중심의 중세를 공격하는 등의 유럽
대륙의 르네상스와는 차별화 하면서 문화의 자유변이를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신
분위중심의 권위를 오히려 로마 교황청이 남용하고 직권 남용하는 모습이 고딕적인
소재의 모티브로 비인도적인 면을 공격하고 나선다.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는 인도

주의적인 본성을 찾자는데서부터 고딕적인 텍스트는 발전되었던 것이다.

고딕적인 요소는 로마 교황청과의 저항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셰익스피어의 개인이나 엘리자베스가 표방한 것이었다. 18세기 말 고딕소설이 발생되었던 것은 이미 엘리자베스 시대에서부터 문학적 장치가 이미 있어왔고, 고딕적인 요소는 좁게는 로마 교황청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는 하지만, 희극 작품에서는 그러한 교황청에게 종교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인본주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죄의 단절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서와 화해의 복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고딕적인 요소와 희극적인 요소가 강한 『자에는 자로』(*Measure for Measure*)에서 나오는 비엔나는 로마 교황청이 지배하는 도시로 그 도시는 성적인 타락을 범람하는 죄악의 온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결국 셰익스피어는 교황청의 권위보다 더 높은 지위에서 비엔나를 통치하는 결과를 단면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고딕에 대한 정의를 상기 해 볼 때, 야만적이고 서로마제국의 몰락을 상징하는 평가 절하된 로마의 모습과 비슷한 상황의 재현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에 오는 『자에는 자로』(*Measure for Measure*)에 등장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교황청이 다스리는 도시의 타락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자에는 자로』(*Measure for Measure*)에서 엔젤로(Angelo)의 모습이 교리문답을 통해 죄를 사면해주는 수도원의 신부의 모습과도 유사하다. 신을 대신하고 있는 최후의 심판자와 같은 존재로도 볼 수 있다. 비엔나라는 장소로 배경을 소개한 이유는 셰익스피어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타락한 국가의 도시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왜냐하면 서로마제국의 멸망직전에는 성경에서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처럼 타락한 나라 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로마제국이 지배하는 오스트리아의 모습을 연관시켜서, 비엔나의 공국도 성적 타락의 온상지로 그려 나갔다.

(비엔나의 거리)

루치오. 가만, 저길 봐. 성병 치료총책 마담께서 오시는 군!

저 여편네 집에서 병에 걸린 계집깨나 산 바람에 쓴 돈이 자그마치. . . .

신사 2. 그래 얼마나 되나?

루치오. 맞춰 보게 그려.

신사 2. 1년치 총계가 3천둘러 쯤 되겠지. (제1막 1장)

. . .

신사1. 자넨 늘 내가 나쁜 병에라도 걸린 것처럼 말하는데,
그건 큰 잘못일세. 난 아주 완벽하다구.

루치오 그런가? 그건 건강이 완벽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병에 걸렸다는
뜻이겠지 뼈까지 파고든 걸세. 너무 재미를 보면 그런 거라구.

오베르도네 마담등장

신사 1. (마담에게) 어서 오슈! 그런데 좌골 신경통이 심한 건 어느 쪽 엉덩이지?

Lucio. Behold, behold, where Madam Mitigation comes! I

have purchased as many diseases under her roof as come to -

Gen 2. To what, I pray?

Gen 1. Judge

Gen 2. To three thousand dolours a year.

. . .

Gen 1. Thou art always figuring diseases in me, but thou art
full of error: I am sound.

Lucio. Nay, not (as one would say) healthy; but so sound as
things that are hollow: thy bones are hollow; impiety
has made a feast of thee.

Gen1. (to Overdone:) How now? Which of your hips has the
most profound sciatica? (Act 1/Sc.1.)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거리에서도 신사들과 루치오(Lucio)는 성적인 타락의 대화의 내용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그러한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은 가부장제 혹은 남성위주의 폭력성이지만, 결국 이러한 권위주의는 로마 가톨릭 교황청의 교만에서 오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거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폐쇄적이면서, 이성적인 공간으로 고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그러한 공간에서는, 거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는 죄인들만이 드나드는 거리로 전락하고 만다. 그래서 다음에 오는 인용문에서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오히려 이 극의 사악한 악마의 주범은 남성위주의 가부장제에서 오는 것이라고 본다. 안젤로 스스로 그가 저지른 음란한 행위를 비난한 사람만큼의 비난을 받게 되고, 설상가상 그의 권력이 평상시에도 저지른 음란의 행위보다 더 많이 저지를 환상에서 살아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식적'인 역사에서 비엔나의 상류사회에서 나온 것이고 서로 다른 이야기들은 하층민에 의해서 전해져서 하나의 극의 이벤트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논제자번역)

Rather, the main evil of the play comes from the central man of authority, Angelo himself, who is just as guilty of lechery as those he condemns and what is worse his power enables him to live out his fantasies far more than an ordinary lecher could. So we have an 'official' history coming from those at the top of Viennese society, and another quite different narrative coming from those below and from the play's events.

(Garbriel, p. 170)

이러한 타락한 환경에서 타락한 천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법 집행도 제대로 안 되는 무법천지였고, 그러한 환경 하에서 매춘과 성병이 도사리는 도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가브리엘(Gabriel)은 오히려 이러한 지나가는 사람들 보다 더 사악한 존재로 엔젤로(Angelo) 경에 대한 분석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사악한 존재로 그려진 것은 그의 교만 때문이었다. 교만은 기독교에서 하느님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이기 때문에 사탄의 모습으로 그려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의 역할을 한 대천사장인 미카엘(Michael)⁴⁾이 교만하고 타락하여 하나님한테 추방당한 사탄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인 악마를 뜻한다. 대천사장인 미카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을 이롭게 하는 대천사장의 역할을 하였지만, 하나님과 대적함으로써, 인간을 잔인하게 다스리고 괴롭히는 존재다. 더욱이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이 정령의 세계와도 흡사하기 때문에 천사에게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문화에서는 용납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때로 천사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들을 자행하는 사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한 교만한 미카엘의 모습은 안젤로(Angelo)가 악행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기독교에서 가장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교만이다. 교만을 상징하는 자는 바로 악마를 뜻하는 것이다. 잠언 16장 18절의 성경구절은 다음과 같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래의 대사는 이사벨라(Isabella)가 엔젤로(Angelo)에게 자기의 오라비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간청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집행한다고 하자, 더욱 더 간절히 로마의 신 Jove(Jupiter)를 비유하면서 냉정하고 잔인한 자의 교만에 대한 징벌의 예고를 비추면서 그를 설득하려는 대목이다.

이사벨라.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조브신 처럼 천둥벼락을 내린다면
조브 신은 잠시도 쉬실 틈이 없으실 것입니다. 하찮은 벼슬아치까지도
하늘을 소란하게 할테니까 말이요요. 온 천지가 천둥벼락 밖에 없는
세상이 되고 말 겁니다. . .
아, 자비로운 신이여! 당신께서는 그 날카롭고 무서운 번갯불로
췌기도 안들어가는 옴투성이의 떡갈나무도 쪼개 놓고 맴니다마는, 연약한

4) 가톨릭에서는 신자들의 세례명이 이탈리아식의 이름으로 받고 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마이클이라고 부르지만, 이탈리아에서는 대천사장의 이름을 미카엘이라 부른다.

도금양 꽃나무는 손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만한 인간은
 잠시동안의 조그만 권력을 등에 업고서 자신이 유리알 처럼 부서지기 쉬운
 인간이란 것도 모르고 성난 원숭이처럼 드논은 하늘을 향해 별의 별 괴상한 장난
 을 다 부려 천사들을 울려놓습니다. 인간이 울화를 터뜨리면 죽어라 웃는다는
 그 천사들을 말입니다. (제 2막 2장)

Isabella. Could great men thunder
 As Jove himself does, Jove would never be quiet,
 For every pelting petty officer
 Would use his heaven for thunder, nothing but
 thunder!

Merciful Heaven,
 Thou rather, with thy sharp and sulphurous bolt,
 Splits the unwedgeable and gnarlèd oak
 Than the soft myrtle But man, proud man,
 Dressed in a little brief authority,
 Most ignorant of what he's most assured
 (His glassy essence), like an angry ape
 Plays such fantastic tricks before high Heaven
 As makes the angels weep: who, with our spleens,
 Would all themselves laugh mortal. (Act 2. sc.2)

위의 대사를 추론해 보면, 타락한 대천사장의 역할의 모습으로 안젤로(Angelo)를 그려나간 것임을 알 수 있다. 빈센티오(Vincentio)는 비엔나 도시를 통치하는 공작으로, 인자하고 선행을 베푸는 자비로운 자로 전통주의 문학 비평⁵⁾에서는 다뤄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공작의 대리인 혹은 심부름의 신분일 뿐인데, 안젤로(Angelo)는 타락한 장소에서 타락한 대천사장의 모습의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한 장소를 어둠의 세계를 가리키고 있다. ‘빛의 세계는 거룩한 영들의 세계이고 질서가 있으며, 예수님이 지휘하고 대천사장인 미카엘이 돕고 있다. 어둠의 세계는 - 타락한 영들의 세계, 즉 타락한 대천사장의 세

5) The Duke - The other central figure is the Duke, who spends most of his time dressed as a friar in order to observe what is happening in his absence. The Duke is unfailingly virtuous, good, and kind-hearted. He tends to rule a little softly, which is why he enlists Angelo's help.(www.sparksnotes.com)

계이고 그 세계의 우두머리는 루시퍼이다. 그리고, 무질서의 세계라 지휘체계가 없다. 사탄과 악마들이 인간고통을 즐기는 쾌락 뿐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성경적인 배경은 직접적으로 표면화 하지는 않았고 텍스트를 통해서 묵시론적으로 암시할 뿐이다. 로마 제국의 지배 하에서 어두웠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중세의 암흑기의 시대와 비슷한 폐쇄성과 공포는 고딕이 주는 그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의 역사는 성문 밖의 광장에서 이루어 진다. 고딕의 공포는 폐쇄의 공간과 등장인물의 독백에서 일어나는 일과 달리, 막히지 않는 광활한 공간에서 즐겁고 선한 일이 펼쳐진다는 것이다. 광장에서는 빈센티오도 엔젤로도 더 이상 약해질 수 없는 광장이다. 이것은 예수의 무리들도 이러한 시민들이 모여든 광장에서 집회와 예배를 하였고, 선한 사마리아 인도 도우는 선한 일을 하였던 것이다.

성적 타락이 난무한 비엔나의 건물 안에서 벗어나 광장에서 누가 복음 6장 37~8의 성경적인 복음주의의 텍스트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눈에는 눈’이라는 공작의 설명에서도 보았듯이 엔젤로에게 법 집행의 언도를 내리는 상황이다.

공작 (이사벨라에게) 지금 저기 오는 새 신랑이 음탕한

사님께 사로잡혀 그대의 깨끗한 정조를 더럽히려고 했지만,

마리아나를 봐서 용서해주기 바라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대 오라버니를 사형선고한 사람이고, 신성한 정조의 유린과

아울러 오라버니를 석방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이중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으니,

결국 그대 오라버니를 죽인 범인이 아니겠소

그러니 아무리 자비를 바탕으로 한 이 나라의 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소리높이 외치는데야 어찌겠소.

“클라디오는 안젤로(Angelo)에게 양갈음하고 죽음에는 죽음으로

갈아야 하느니라. 또 급한 것에는 급한 것으로, 이것은 여유에는 여유로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바로 말은 말로 되는 되로 갈는 것이

법의 정신이다.“라고 말시오. 자 안젤로 경,

경의 죄는 이토록 명백하오.

부정해도 소용없소. 난 경에게 사형을 선고해요. (제 5막 1장)

Duke. For this new-married man approaching here,

Whose salt imagination yet hath wronged.

Your well-defended honour, you must pardon

For Marian's sake; but as he adjudged your brother,

Being criminal, in double violation

Of sacred chastity and of promise-breach,
Thereon dependent, for your brother's life,
The very mercy of the law cries out
Most audible, even from his proper tongue,
'An Angelo for Claudio, death for death.'(Act 5. Sc.1)

이 극의 제목을 살펴보면, 우리들에게 역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하게끔 해준다. 그것은 “눈에는 눈 과 이에는 이”라는 구약의 원리를 잘 알게 해주는 가치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런 구약의 원리는 잔인한 행위를 부추기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제한시키려는데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눈과 이를 빼갈 경우 그에 대한 댓가로 피해자의 가족이 대신해서 범죄자의 눈과 이를 빼게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다. 즉, 이 법은 갈등의 고조를 막고자 하는데 있다.

Turning to the title of the play enables us to explore further what thinking historically involves. It is worth knowing that the Old Testament principle invoked by the title of "an eye for an eye and a tooth for a tooth" was intended not to promote savagery but to limit it. The idea was that in response to someone taking out an eye or tooth the victim's kin could in return take out the perpetrator's eye or tooth, but no more than that. That is, the rule was to prevent escalation of conflict.(Garbriel, p.163)

위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베니스의 상인』 (*The Merchant of Venice*)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다음은 제 4막 1장에 나오는 법정에서 자에는 잣대로 법을 지켜나가는 과정이다.

포셔(Portia)는 약속 날짜를 어겼으니 할 수없이 법적으로 이 상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 1파운드를 잘라내겠다는 유대인인 샤일록(Shylock)의 주장이 잘못된 게 없다고 하자, 샤일록(Shylock)은 계약한 대로 빚이 청산되면 그렇게 한다고 대답을 한다. 샤일록(Shyloc)의 냉정하고 잔인한 상황이 보여주는 대목이다.

샤일록. . . . 그 노예들은 우리 것이다 라고 저의 답도 마찬가지로요.
저 사나이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한 파운드의 살덩어리는,
제가 대가를 치르고 산 것입니다.“라고 그것은 소인의 것이옵고 꼭 가져가야
겠습니다. . .

Shylock. . . . The slaves are ours. so do I answer you:

The pound of flesh which I demand of him
Is dearly bought, is mine, and I will have it. . . .(VI, I, 98-100)

글자그대로의 해석에만 매달린 바리새인 처럼 율법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비쳐주고 있다. 글자그대로의 잣대로 법을 해석하고 판결을 내린다.

포서. 잠깐 얘기할 것이 있다. 이 증서엔 피는 한 방울이라도
그대에게 준다는 말은 없어. 여기 표현되어 있는 말은
'살 한 파운드'이다. 증서대로 살을 한 파운드만 떼어 가거라.
단 살을 떼 때, 예수교도의 피를 한 방울이라고 흘린다면,
베니스의 법에 따라, 그대의 토지와 재산은 몰수 당할 것이다.

Portia. Tarry a little; there is something else.
This bond doth give thee here no jot of blood;
The words expressly are " a pound of flesh."
But in the cutting it,if thou lands and goods
Are by the laws of Venice confiscate
Upon the state of Venice. (VI, ii, 305-311)

결국 자기가 만들어놓은 법에 의해 굴욕을 당하는 장면이다. 사랑이 없는 율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다. 법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반사의 효력을 갖게 해주고 더 이상의 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나, 구약에서는 정의를 위한 복수의 원리를 뜻하고 있지만, 이것은 예수가 탄생하기 이전의 일이다. 그래서 예수가 탄생하기 한참 전의 한 여름 밤의 모습은 이교도의 정령들이 난무하고 무질서의 세계이다.

예수가 탄생하기 훨씬 전인 한 여름밤의 꿈에서 벌어지는 세계는 충실한 종도 없다. 요정의 왕인 오베론(Oberon)의 심부름꾼으로 나오는 픽(Puck)은 『한 여름 밤의 꿈』 (*A Midsummer Night's Dream*)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존재로 정령의 세계에 산다. 이러한 한 여름 밤에 사는 요정들의 모습은 예수의 탄생을 방해하는 존재의 모습이기도 하다. 복음주의적인 요소보다는 마술과 인간들의 불행을 즐기거나 무질서의 상징으로 그려지고 있다.

『한 여름밤의 꿈』은 극의 재미난 분위기를 위해 뒤죽박죽으로 장난하는 요정들의 세계를 창출하고 있다. 문예비평가인 머저리에 가버는 “깃곳은 장난과 음악과 마술 그리고 마법의 세계”로 “주요 배우들과 대리인의 역할”로서 픽을 그려나가고 있는 것이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고 말을 하였다. (논제자 번역)

A Midsummer Night's Dream with a playful and topsy-turvy spirit that creates much

of the play's fun atmosphere. It's no wonder that literary critic Marjorie Garber describes Puck as the "principal actor and agent" in a "world of enchantment, magic, music, and mischief." (<http://www.shmoop.com/midsummer-nights-dream/puck.html>)

떡은 오베론의 심부름꾼으로 그는 지시대로 큐피드의 화살을 맞은 꽃잎을 가져와서, 아테네의 여인들에게 꽃즙을 잘못 뿌리는 실수를 저질러서 그들 연인들간의 사랑은 뒤엎키고 마는 소란을 일으킨다. 허미아(Hermia)와 라이샌더(Lysander) 그리고 헬레나(Helena)와 디미트리우스(Demitrius)와의 연인 관계는 뒤죽박죽으로 뒤엎키게 되는 소동이 벌어진다.

떡. 숲을 살살이 뒤졌지만 아테네 사람은 그림자도 못 찾겠네?

이 꽃에 사랑을 일으키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아테네 사람
눈꺼풀에 떨어뜨려 보아야 하는데, 사방에 어둠과 고요뿐이로구나.

어라, 이건 누구지? 아테네 사람처럼 차리고 있잖아.

전하께 말씀 하셨던

바로 그 사람이구나. 아테네 처녀를 혐오한다는 사내로구나.

가연은 처녀는 여기에서 자고 있구나. 축축하고 지저분한 이 땅바닥에서.

이렇게 예쁜 처녀가. 이렇게 시건방지고 무례한 놈 곁에 누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네 이놈. 네 놈 눈에 무서운 힘을 지닌 꽃의 즙을 떨어뜨린다.

(사랑의 즙을 떨어뜨린다.) 내가 깨어나면 사랑에 정신을 빼앗겨 잠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가거든 깨어나라.

이제 나는 오베론의 전하께 가봐야겠다. (2막2장)

Puck. Through the forest have I gone ;
But Athenian found I none
On whose eyes I might approve
This flower's force in stirring love.
Night and silence - Who is here?
Weeds of Athens he doth wear :
This is he my master said
Despised the Athenian maid ;
And here the maiden, sleeping sound,
On the dank and dirty ground.
Pretty soul, she durst not lie
Near this lack-love, this kill-courtesy.
Curl, upon eyes I throw
All the power this charm doth owe :
When thou wak'st, let love forbid
Sleep his seat on thy eyelid.
So awake when I am gone ;
For I must now to Oberon. (Act 2, Sc. 2I)

떡(Puck)에 대한 실수는 이러한 연인들에게 꽃줍을 잘못 뿌리기 이전부터 심술스런 일들을 자주 행하곤 했었다.

요정. 그대는 짓궂고 꾀 많은 요정 로빈 꾀 펠로우 맞지요?

그대는 짓궂고 꾀 많은 요정 로빈 꾀 펠로우 맞지요?

그대는, 마을 처녀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우유 통 속에 들어가 숨어 그 우유를 휘젓느라 숨 가쁜 아낙네들을 꿀탕 먹이고, 맥주에서는 거품을 뽑아 술꾼들에게 김빠진 맥주를 마시게 하고, 밤 길 가는 행인들에게 엉뚱한 길을 가르쳐 주고는 고소해 하는 그 요정 맞지요?

.

떡이 대답하기를

떡. 암 맞고말고. 내가 바로 그 유쾌한 한 밤의 방랑자란다.

나는 야 오베론 전하의 어릿광대. . . . (제2막 1장)

Thou speak'st aright;

I am that merry wanderer of the night.

I jest to Oberon and make him smile

When I a fat and bean-fed horse beguile, . . (Act 2. Sc.1)

Puck also known as Robin Goodfellow, Puck is Oberon's jester, a mischievous fairy who delights in playing pranks on mortals. Though *A Midsummer Night's Dream* divides its action between several groups of characters, Puck is the closest thing the play has to a protagonist. His enchanting, mischievous spirit pervades the atmosphere, and his antics are responsible for many of the complications that propel the other main plots: he mistakes the young Athenians, applying the love potion to Lysander instead of Demetrius, thereby causing chaos within the group of young lovers; he also transforms Bottom's head into that of an ass.

(<https://www.sparknotes.com/shakespeare/msnd/quotes.htm>)

또한 그는 한 밤의 방랑자이면서 동시에 그는 위법의 왕으로도 일컬어지고 있다.

혼란과 소란을 일으키는 장난꾸러기의 행동을 일삼기도 한다.

사랑하는 연인들을 혼란으로 몰아 놓은 행동으로 사건을 설정함으로써, . . . 이런 방식으로 떡은 또한 '불법의 제왕'과 같은 등장인물로 설정하기도 한다. (논제자 번역)

By setting in motion the events that send the lovers into chaos, . . . In this way, Puck is also a kind of "lord of misrule" figure.

(<http://www.shmoop.com/midsummer-nights-dream/puck.html>)

이러한 혼란스런 행위를 하는 그는 오베론의 심부름꾼으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점에 세례 요한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기독교인들의 달력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동지에 결국 정했고, 요한이 세례 받는 날(6월24일)을 여름의 하지로 정해서 축제의 날로 기념했다. 가톨릭 사제회에 따르면, 기독교적인 복음주의에 관한 요한의 말을 상징화한 것을 정했다. :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할 것이다. 크리스마스의 이브날은 축복의 시간이며 악령이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물론 성 요한의 이브는 보다 더 모호하지만 공통된 것은 한여름은 광기의 계절이라는 것이라고 『십이야』 (*The Twelfth Night*)에 나오는 올리비아의 말이다. 결국 한여름은 한 해의 마지막 날과는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논제자 번역)

The Christian calendar finally established the celebration of the birth of Christ at the winter solstice⁶⁾, and made a summer solstice⁷⁾ date (June 24) the feast day of John the Baptist. This arrangement, according to the Fathers⁸⁾, symbolized John's remark in the Gospels on beholding Christ: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Christmas Eve was a beneficent time, when evil spirits had no power; St. John's Eve was perhaps more ambiguous, and there was a common phrase, "midsummer madness," used by

6) 동지(winter solstice): 스물두 번째 절기를 말한다. 음력으로는 11월 중기(中氣)이며, 양력으로는 태양이 적도 이남 23.5°의 동지선(冬至線:南回歸線)과 황경(黃經) 270°에 도달하는 12월 22일 또는 23일을 가리킨다. 대설의 다음이며 소한의 앞이다. 동지를 24절기 중 가장 큰 명절로 즐겼다. 태양이 남회귀선, 적도 이남 23.5°인 동지선에 도달할 시절로 밤이 제일 길다. 반대로 남반부에서는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다.
[네이버 지식백과] 동지 [冬至, winter solstice] (지구과학사전, 2009. 8. 30., 북스힐)

31) 하지(夏至, summer solstice): 열 번째 절기를 말한다. 음력으로는 5월 중, 양력으로는 6월 21일경이 시작되는 날이며, 망종(芒種)과 소서(小暑) 사이에 있다. 해가 황도의 하지점을 통과하는 날, 태양은 황도 상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 위치를 하지점(夏至點)이라 한다. 북반부에서는 일 년 중 가장 낮이 길며 정오의 태양 높이도 가장 높고 태양으로부터 가장 많은 열을 받는다. 이 열이 쌓여서 하지 이후에는 기온이 상승하여 몹시 더워진다. 북극지방에서는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고 남극에서는 수평선 위로 해가 나타나지 않는다. 동지에 가장 길었던 밤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하여 이날 가장 짧아지는 반면 낮 시간은 14시간 35분으로 1년 중 가장 길다.
[네이버 지식백과] 하지 [夏至, summer solstice] (지구과학사전, 2009. 8. 30., 북스힐)

32) Fathers (1) 사제회 또는 수도자의 단체:Fathers of Charity [영] (1) 사제회 또는 수도자의 단체: Fathers of Charity 애덕회의 신부회(1828 안토니오, 로스미니 창립); Fathers of a Good Death= Camilliani 선종 봉사 사제회; Fathers of the Desert 4세기 예집트 사막의 수도자들(수도원 제도는 이것에서 생김). (2) 교부(教父): Fathers of the Church 교부(教父). (3) 성조(聖祖), 태조(太祖): 구약성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들, 즉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 유대인들은 Rabbi(율법 교사)도 Father라고 불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부르는 것을 견책하셨다(마태 23, 9). 사도 바오로는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을 신앙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자신을 신자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했다(1코린 4, 15; 갈라 4, 19).
[네이버 지식백과] Fathers (가톨릭에 관한 모든 것, 2007. 11. 25., 가톨릭대학교출판부)

Olivia in Twelfth Night, a play named after the opposite end of the year. (Fry, p.42)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요한 복음 3장 20절의 구절에서도 나왔듯이 이것은 빛에서 악령들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희망을 상징한다.

픽. 왕비님은 싸우기만 하실 뿐 숲 속에서도
들녘에서도 맑은 샘물가에서도 빛나는 별밤에도 만나지 않으신다.
두 분이 이리시니, 겁을 먹은 요정들은 도토리 껍지 속에 숨어 나올
생각을 않는다. (제 2막1장)

*Puck. And now they never meet in grove and green,
By fountain clear, or spangled starlight sheen,
But they do square; that all their elves for fear
Creep into acron-cups, and hide them there. (Act 1 Sce. 1)*

물론, 초자연의 세계에서 등장하는 픽(Puck)은 남성성으로 지칭되며, 이러한 남성성을 지닌 요정은 귀가 뾰족하고 사람들을 잘 속이고 마술을 부리는 엘프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남성위주(logocentricism)⁹⁾의 정령 역시 인간 사회를 혼란케 하고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로 요정의 왕인 오베론(Oberon)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타락한 천사의 이미지로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그릇된 세계의 상징인 픽(Puck)과 남성의 권위주의의(logocentricism)에서 오는 사악한 엔젤로(Angelo)경은 모두 주인을 대신해서 역할을 하는 대리인(Agent)일 뿐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체자는 아니다. 픽(Puck)은 오베론(Oberon)의 심부름꾼이고 엔젤로(Angelo) 경은 빈센티노(Vincentino) 공작의 대리인이들이지만 자기 직분에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 마치 하나님의 심부름

9) 우선 '로고스'라는 단어가 가지는 두 가지 근본적인 의미부커 캐보기로 하자. '로고스'가 가지는 첫 번째 의미는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Word)으로서의 로고스'이다. 이는 곧 기독교의 근본 사상이며, 이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써 세상에 태어나 우리(여기서는 서양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후에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되었다)를 구원하러오시는 예수의 말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말씀은 곧 하느님(예수)의 뜻이며, 그의 현전(presence)을 나타내며, . . . , 두 번째 의미는 이성으로서의 로고스의 힘이다. 이성으로서의 로고스는 말씀으로서의 로고스와 질적으로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으로서의 로고스를 많은 경우 도와주고 강화시켜주었다. 예를 들면, 세상에는 처음과 끝이 있다든지 또는 세상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은 지음을 받은 것이며, 지음을 받기 위해서는 지은이(창조주)가 있어야 한다는 그것이다. 그러나 창조주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로서 누구에 의해서도 지음을 받지 않은 제 1원인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는 이이다. 다시 말하면, 지음을 받은 세계에서는 이성으로써 모든 것이 설명되지만 스스로 있는 창조주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는 세계에 존재하므로, 우리의 이서의 차로 켈 수가 없다. 이정호, pp., 9~10)

꾼인 대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타락한 천사가 된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타락한 천사의 길을 걷고 있는 듯한 모습에서 폐쇄되고 그릇된 남성 지배의 사회는 약육강식이 난무한 계급 투쟁의 모순으로 질서가 파괴되고 있고, 급기야 비엔나라는 도시도 타락의 도시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재현해 내고 있다. 예수의 존재를 부인하는 샤일록에게서 나타나는 힘이나 재력으로 얻어진 힘으로 이렇게 타락한 일을 저지르는 행위들은 절대자에게 충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려져 있다.

주인에게 충실하지 못한 하인의 모습들이 오베론(Oberon)과 펙(Puck)의 관계에서 비춰지고,

내가 너희 더러 종이 주인 보다 더 크지 않다“라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터이라. (요한 복음 15:20)

Remember what I told you:“Slaves are not greater than their master.” If people persecuted me, they will persecute you too; if they obeyed my teaching, they will obey yours too. (John 15:20)

재력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샤일록(Shylock)에게서 성경의 문자그대로의 해석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그릇된 힘의 문화를 상징하는 로마교황청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재력이나 직권남용의 횡포를 일삼는 죄인들이 난무하는 모습들이 즐비하게 전시되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은 고딕적인 분위기의 고성(固城)에서만 나올 법 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메시아의 부재를 가리키기 위한 전략적인 표현 이었다고 볼 수 있다. 로마 문화의 찬란함이 외부세계로 나가는 베니스라는 항구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로마문화를 상징하는 베니스의 모습도 그렇게 신성하지는 않는 모습이고 이러한 로고스 중심의 본래의 의미인 하나님 말씀중심의 뜻을 왜곡하는 행태가 자행되는 모습이다. 하나님 말씀 중심(logocentricism)의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려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유대인을 조롱하는 듯한 상황이 셰익스피어의 희극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대사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유언을 거역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현장과 타락된 현장의 모습이다. 로고스 중심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유럽의 모습은 타락된 장소 일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유언을 거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유럽은 더 이상의 종교적으로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없다. 비엔나나 베니스와 같은 타락한 도시가 배출되는 등의 죄인 된 모습은 과거의 죄가 연장선상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여름 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한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 이교도 신들의 무질서와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인간을 골탕 먹이는 정령들의 세계는 한 여름 밤에만 그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어두운 면으로 타락과 무질서의 현상이 재현되고 있지만, 과거의 죄를 단절 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존재의 이유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수용으로 영국은 커다란 문화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그것은 바로 고딕적인 폐쇄된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에 의해 열려진 천상의 길을 확보하는 것을 알리려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성서에 의거한 자유변이형을 창출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로마 교황청의 타락에서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길은 항상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셰익스피어의 희극 작품들이었다.

III. 결 론

이러한 작품들을 살펴보면, 엘리자베스의 종교적인 타협과 프로테스탄트를 수용하기까지의 힘들고 어두웠던 역사를 보는 듯한 작품들이었다. 그녀의 종교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영국이 사회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끝에 영국의 역사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45세가 되는 집권 시기가 영국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 중의 하나였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시기 동안에 영국교회회의 수장으로서의 확고한 자리를 굳혔으며 그녀는 1563년에 39조항의 독트린을 발표한다. 그리하여 로마가톨릭과 프로테스탄티즘과의 유화정책을 실시했다.

Her 45-year reign is generally considered one of the most glorious in English history. During it a secure Church of England was established its doctrines were laid down in the 39 Articles of 1563, a compromise between Roman Catholicism and Protestantism. (<https://www.royal.gov.uk/HistoryoftheMonarchy/KingsandQueensofEngland/TheTud...>)

그것은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여성성으로 복잡한 종교 문제를 해결하고 영국의 종교적 합의(English Religious Settlement)를 이룩해내었다는 것이 유럽 대륙의 르네상스와는 상이(相異)하다는 것이다. 영국의 종교 개혁은 비록 왕실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지만 결국 영국의 서민에서부터 영국 왕실에 이르기까지 입헌군

주제의 정착과 함께 종교의 자유를 국민에게 선택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또한 영국의 종교개혁은 튜더 왕조 이후에도 프로테스탄티즘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본주의로 그에 뒤따르는 인문학이 왕성하게 된 이유도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다.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에서 사일록(Shylock)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고, 사일록의 딸이 기독교인을 사랑하고 결국에는 결혼에 대한 암시도 아울러 그려지고 있다. 『자에는 자로』(*Measure for Measure*)이사벨라(Isabella)는 공작과의 결혼하는 선택권으로 설정되는 분위기는 그녀의 주변 인물과의 용서와 화해의 기독교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성직자의 결혼 선택권은 유럽대륙의 종교개혁에서 벌어진 신역사주의적인 이론에서도 언급한 역사가 있는 문학 이야기의 조화는 셰익스피어의 『자에는 자로』(*Measure for Measure*)의 예비 수녀인 이사벨라(Isabella)가 공작과 결혼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주는 개신교 사상의 수용의 중요성을 인지 시켜주고 있으며, 이러한 엘리자베스 여왕 1세의 영향으로 스튜어트 왕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과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개별 국가인 영국이 취할 수 있는 대화의 수단은 셰익스피어의 희극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교도적인 요소로 『한 여름 밤의 꿈』(*A Midsummer Night's Dream*)은 정령들의 세계는 오히려 혼란과 무질서로 자행되고 인간을 골탕 먹이거나 괴롭히는 요정들로 가득 차며, 신하된 자로서의 충성된 심부름도 하지 못하는 세계가 곧 밤의 세계를 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한 여름 밤의 꿈』(*A Midsummer Night's Dream*)이 바흐친의 다성성의 소리로 들려오는 자유로운 축제 현상의 모습의 전개는 한 여름 밤의 꿈으로 대단원으로 막을 내리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 한 여름 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는 동방박사의 출현과는 대립되는 밤이다. 한 여름 밤의 꿈 내면에 숨겨진 알레고리로 표현이 곧 예수의 메시지를 알리고자 하는 복음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정령들의 마법보다는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 즉 God's spell이 Gospel로 철자가 바뀌어진 것도 마법보다 더 위대한 상위법의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함이다. 그래서 이러한 허미아(Hermia)의 꿈이 간절히 실현되고자 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의미가 재생산되고 있다. 구세주인 메시아의 등장은 개인적 구원에 있고, 그러한 개인적인

구원은 개개인에게 자유의지(free-will)를 준 것이다. 이러한 영국의 종교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복음주의적인 『신약 성서』를 바탕으로한 알레고리로 예수의 등장을 알리려고 한다. 그렇게 알리기 위한 과정 중에 재현된 다성성과 개인의 다양한 목소리의 자유로운 수사학은 곧 로마 교황청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분위중심의 어두운 중세보다도, 예수로 인해 인간이 자유함을 얻는 인본주의의 노력의 일환이 문학적으로 재현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현된 표현들이 은유의 덩어리로 알레고리를 형성하는 인문학으로 승화시켜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수사학적인 자유로운 표현법은 종교개혁의 원론적인 담론을 알리려는 영국이라는 실질적인 사회현상에 적용하여 생성된 자유 변이의 문화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중세 시대의 신 본위(神本位)에서 인본주의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오히려 성서위주의 복음주의적인 가치를 중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것의 영향으로 말씀 위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과거의 죄의 단절과 용서와 화해로 이른바 ‘거듭나는 삶’으로 찾아가는 인간들의 구속사를 알리는 종교 개혁의 당위성들이 자유변이의 문화 창출이 생성된 것이다. 어두운 세계에서 빛을 찾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메시아인 예수의 탄생을 당연시 여기는 종교 개혁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종교 개혁은 인본주의의 해방이며, 곧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 시켜준 예수의 탄생이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자유 의지를 존중해 준 예수의 덕택으로 인본주의가 살아나고 그러한 가운데 자유 변이의 문화 창출이 생성되었다. 이러한 예수로 인한 구속이 우리를 자유함을 준 아이러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니라’라는 말씀으로 문학 작품의 자유변이 현상들로 인간들에게 창조의 힘을 불러 일으켜주었다. 그리하여 셰익스피어의 희극 작품들 속에서도 자유롭게 여걸들의 활약상도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유로운 문학적 표현은 종교개혁의 본래의 의미는 상실되지 않은 채 여러 다양한 표현과 작품으로 분출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죄를 심판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구원으로 회개와 용서로 예수라는 절대자에게 구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인간을 자유롭게 이끌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이 깃들여져 있는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색어: 『베니스의 상인』, 『자에는 자로』 『한 여름 밤의 꿈』, 『자유변이 현상』, 엘리자베스의 유화정책, 영국의 종교개혁, 타락과 구원, 프로테스탄티즘,

[Bible]

NIV *Today's Parallel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1996

King James translation of the Bible, London, 1611.

천종수, 김상복 편저 『한영해설성경』, *The Best Korean English Study Bible*,
성서원, 서울, 2003.

참고문헌

- 키토, 『그리스 문화사』, 김진경 옮김. 서울: 탐구당, 2004.
루이스. 『수도사』. 김문유·한지영 옮김. 서울: 현대문화센타, 2002..
세익스피어, 윌리엄. 『양갓음』 김문유 외 옮김.
이영림 외 2인, 근대유럽의 형성, 도서출판 까치: 서울, 2011.
이정호, 『영미시의 포스트 모던적 일기』 - 『베오울프』에서 T.S. 엘리엇까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조신권. 『영문학 속에 나타난 성서의 향기』. 서울: 풍만출판사, 1987.
_____. 『재미있고 신나는 성경이야기』. 서울: 아가페문화사, 2008.
_____. 『예수와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서울: 아가페문화사, 2009.
_____. 『존 밀턴의 영성문학과 신학』. 서울: 아가페문화사, 2015.
_____. 『청교도 신앙과 문학 탐구』. 서울: 아가페 문화사, 2016.
존슨, 폴. 『유대인의 역사 1』. 김한성 옮김. 서울: 도서출판 살림, 2005.
태학사 편. 『방언학 사전』. 서울: 태학사, 2003.

[References]

Anderson, Howard, ed., Matthew Lewis, *The Monk*, Oxford World's Class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_____ Emma McEvoy,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augh, C. Albert. ed., *A Literary History of England 2nd Edition*, Baugh Brooke,
Tucker & Shaaber, A. Matthias *The Renaissance 1500-1660, vol II*,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 Henley, 1981.

- Bernard, Robert, *A Short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 Blackwell Publishers: Oxford
 Shakespeare, William, Bevington, David. ed., *As you Like It*, Papp, Joseph Foreword,
 Bantamin books: New York, 1998.
- Boitani, Piero, *The Gospel according to Shakespeare*, trans. Montemaggi, Vittorio &
 Jacoff, Rachel Univ. of Notre Dame Press, Notre Dame, 2013.
- Bloom, Harold. *Shakespeare the Invention of the Human*, Riverhead Books: New York,
 1998.
- Carter, Roland & McRae, John, *The Routledge History of Literature in English Britain
 & Ireland*, Routledge: London & New York, 1997.
- Davidson, M. Carol, *Gothic Literature 1764-1824*, Univ. of Wales Press: Cardiff, 2009.
- Dobie. B. Ann, *Theory into Practice An Introduction to Literary Criticism*, Thomson &
 Boston, 2002.
- Dollimore, Jonathan & Alan, Sinfield. ed., *Political Shakespeare*, Dollimore Jonathan,
Transgression and surveillance in Measure for Measure, Manchester Univ.
 Press : Manchester, 1994.
- _____. McLuskie, Katherine. *The Patriarchal Bard*. Manchester Univ.
 Press : Manchester, 1994.
- Fromkin, Victoria & Rodman, Robert, *An Introduction to Language*, New York: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1993.
- Frye, Northrop. *The Great Code : The Bible and Literature*.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1982.
- _____. *The Myth of Deliverance*. Toronto :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83.
- Garbriel, Egan. *Shakespeare Edinburgh Critical Guides to Literature*. Edinburgh :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7.
- _____. "*Comedies : A Midsummer Night's Dream and Much Ado
 about Nothing.*"
- _____. "*Authority and Authorship: Measure for Measure*"
- Greenblatt, Stephen. *Renaissance Self-Fashioning from More to Shakespeare*. London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 Hamlin, Hannibal. *The Bible in Shakespeare, Biblical Allusion in the Plays, "Shakespeare's Variations on Genesis 1-3"*, Oxford Univ. Press: Oxford, 2013.
- Hirschkop, Ken & Shepherd, ed., David. *Bakhtin and Cultural Theory*, Manchester Univ. Press: New York, 1989.
- Hiscock, Andrew & Stephen Longstaffe, Stephen. ed., *The Shakespeare Handbook*, Streete, Adrian. *Key Critical Concept and Topics: Authority*, London: Continuum, 2009.
- Johnson, Paul. *A History of the Jews*, Harper Perennial: New York. 1987.
- Karen, Lee-Throp. ed., *A life-changing Encounter with God's Word from the book of John*, Navpress: Colorado Springs. 1987.
- Kenneth Myrick ed., *William Shakespeare, The Merchant of Venice With New and Updated Critical Essays and a Revised Bibliography*
 _____ Stoll., *From Shylock*, Signet Classics: NY, 2004
- Knight, G. Wilson. *The Wheel of Fire*. London : Methuen, 1949.
- Laura Tosi & Shaul Bassi, *Visions of Venice in Shakespeare*, Ashgate: Surrey, 2011.
- Luther, Martin, "Lectures on Genesis: Chapters 21-25" in *Luthers Works*, ed. Jaroslave Pelikan (Saint Louis, MO: Concordia, 1964.
- Kitto, H. D. F., *The Greeks*, Penguin Books: New York, 1991.
- Marx, Steven, *Shakespeare and the Bible*, Oxford Univ. Press: New York, 2000.
- Michael Caines, *Shakespeare & the Eighteenth Century, Introduction*, Oxford Univ. Press: Oxford, 2013.
- Nancy Tischler, *Thematic Guide to Biblical Literature*, Greenwood: NY., 2007.
- N.W. Bawcutt, ed., *William Shakespeare Measure for Measure*, Oxford Univ. Press: NY, 1998,
- Payne, Michale & Hunter, John, ed. *Renaissance Literature An Anthology, Introduction*

The Renaissance in Cultural and Critical Theory, (Blackwell Publishing, Oxford, 2003.

Piero Boitani, Vittorio Montemaggi & Rachel Jacoff. trans. *The Gospel according to to Shakespeare* Notre Dame, Univ. of Notre Dame Press, 2013.

Punter, David, *The Literature of Terror, The Gothic Tradition, vol.1.* (Longman Publishing: New York, 1996.

Punter, David & Byron, Glennis. *The Gothic*, Blackwell Publishing: Oxford, 2004.

Roger, Pat. ed., *An Outline of English Literatur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1998.
_____, Pitcher, John *Tudor Literature, Once and Future Princes*

Ryan, Kiernan. ed., *New Historicism and Cultural Materialism*, Marjorie Levinson, *From The New Historicism: Back to the Future*, Arnold: New York,1996.

Sandler, Robert, ed., *Northrop Frye on Shakespeare*, New York : Yale University Press,

Scott Kastan, David, *A Will to Believe Shakespeare and Religion*, Oxford Univ. Press: New York, 2014.

1986.

Shaheen, Naseeb. *Biblical References in Shakespeare's Comedies*. Newark :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1993.

Shakespeare, William, ed., Bawcutt, W. N, *Measure for Measure*, Stoll, Elmer Edgar. ed., *From Shylock*, Oxford Univ. Press: New York, 1998.,

Shapiro, James. *Shakespeare and Jew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Whitney, S. Donald. Family Worship, *Here the reformation Must Begin, Family Worship in Church History*, Crossway: Wheaton, 2016.

[External Related Links]

<http://www.online-literature.com/periods/renaissance.php>.

www.uh.edu. Retrieved 2015-12-05.

<http://www.history.com/topic/british-history/henry-viii>.

http://answers.comQ/was_Henry

<http://www.biography/shakespeare/religiona.html>.

<http://www.rmg.co.uk/discover/explore/elizabeth-religious-settlement>.
<http://www.anthropology.ua.edu/cultures/cultural>.
Cultural Materialism-the univ. of alabama, dept of anthropolgy.
<http://www.dicinary.com/browse/pulchritude>
<http://en.wikipedia.org/wiki/Perdita>
<http://endic.naver.com/?sLn=kr>
<http://setuagint.net/>
<http://www.uvm.edu/~1schnell/engs135/comedy.htm>.
<http://read.amazon.com/static/app/>
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logocentris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30007&장=41799&categoryId=41800>
counter[+meet]/[+oppose]/[±meet]
www.sparknotes.com/nofearshakespeare/merchantofvenice
<https://www.uvm.edu/~1schnell/engs135/comedy.ht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57243> &cid=47315&catagirtId=47315
<http://read.amazon.com/static/app/>
http://en.wikipedia.org/wiki/Siege_of_Vienna
<http://www.enotes.com/topic/as-you-lie-it/characters>.
<http://www.cliffsnotes.com/subjects/literature/what-is-experimental-theater>.
<http://www.biblestudyonjesuschrist.com/index-pc.html>
<http://www.online-literature.com/periods/renaissance.php>.
www.sparknotes.com/shakespeare/measureformeasure
<http://www.elizabethfiles.com/act-of-uniformity-1559/3833/>.